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절망스런 상황 앞에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가며

이사야에게는 세 가지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늘의 높이 들린 보좌의 영광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영광에 비추인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부정함과 죄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유다 땅에 임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1. 남은 그루터기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절망스런 그림 속에 하나님은 희미하게나마 소망의 빛을 밝혀두셨습니다. 그것은 ‘그루터기’라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나무가 베여도 땅에 뿌리 내리는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의 정체는 ‘거룩한 씨’로 묘사됩니다. ‘씨’라는 단어는 씨앗을 가리킬 수도, 후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씨, 곧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삼하 7:11-13).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후손을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셔서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 ‘거룩한 씨’ 곧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거룩한 씨, 곧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마 1:1). 하지만 거룩한 씨에 대한 약속은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최종적인 답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씨의 후보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2. 아하스 왕은 거룩한 씨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7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웃시야 왕의 아들 요담의 시대도 지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즉위하였습니다. 그 때 유다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세력을 규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숨에게 명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므로, 전혀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더하시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에도 유다가 안전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징조를 구해보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다윗의 집’이었으나 약속된 거룩한 씨는 아님을 말씀에 대한 불신을 통해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을 넘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불릴 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사야서에서 이 아이의 후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집니다(마 1:21-23). 당장의 현실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린 왕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유일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스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